

왕비는 왕비답고 어미는 어미다워야

교수칼럼



이화형
한국어학과 교수

최근 교육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자식들과 함께 다니며 ‘온정’을 베푸는 불미스런 일들이 연일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교육의 현장에 있는 나로서는 매우 쓸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사 구분이 잘 안 되는 인간공상의 부끄러움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조선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를 두고 “남편이 일찍 죽어 쫓겨나고 자식에 의지해 살면서 손자에게 보복을 당해 죽었으나 참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한 조선의 여인”이라고 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인수대비를 며느리를 죽인 포악한 여자요, 권력욕이 강한 여인이라는 식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 교육의 선구자, 정치력이 있는 여성 지도자 등 긍정적으로 그녀를 평가할 수도 있다. 적어도 그녀에게서 주체성 결여를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투철하게 해냈다. 중국 황제로부터 인정받고 조선 국왕과 맞먹는 위치에 있던 아버지 한화이 죽었을 때도, 일찍이 어머니가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이 슬펐지만 그 이상 흔들리지는 않았다. 출가 이후 시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효부’라는 책까지 만들어 하사했다고 할 만큼 효도를 하였고 특히 자식들을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했다.

궁궐에서 쫓겨나던 세 아이가 땀 린 스물 한 살의 청상과부가 느낄 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희망을 잃으면 죽는다는 일념으로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 인수대비는 『내훈』이라는 여성 교육서를 썼던 장본인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어머니가 자녀교육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비 없는 자식 소리를 듣지 않게



인수대비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던 여성이다. (사극 드라마 속 인수대비의 모습이다.)

(사진자료 = 중앙일보 DB)

하려는 자존심으로 엄하게 자녀들을 가르쳤다. 남편 없이 홀로 한 해에 세 자녀 모두 결혼도 시켰다.

타고난 정치적 안목도 있었다.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의 시아버지 수양대군을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다. 남편 의경세자가 일찍 죽는 바람에 시동생 예종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마침내 장남 월산대군도 아닌 둘째 아들 자을산군을 성종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단지 왕의 어머니라는 평을 듣고자 함이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한 나라의 왕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성스러운 군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부모는 부모로 자식은 자식으로 역할을 다해야 하고, 군주는 군주로서 백성은 백성으로서 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른바 공자의 정명(正名)사상을 마음속으로 신봉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왕비가 된 며느리 윤씨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커질까는 짐작되고도 남는다. 기대가 커진 만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폐출 사유를 실록에서 ‘지나친 투기’라 적고는 있으나 국모의 공적 자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교만하며 천박한 언행을 서

슴지 않는 등 부덕을 팽개쳐버린 윤씨에게는 사랑을 행취하려는 여염집 부녀자의 모습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결국 왕비 며느리를 궁 밖으로 내쫓고 급기야 사약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는 그런 정명사상과 강상 윤리가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성적 판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 며느리 윤씨를 사사시키지만 않았더라면 대신 왕비 자신이 복수를 당하는 망신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어미를 찾는 손자에게도 좀 더 너그럽게 대했더라면 그 같은 만행을 막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그러나 폐비 윤씨의 문제를 사사로운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폐비 윤씨는 한 나라의 막중한 위치에 있는 왕비였고 폐주 연산군이야 말로 국가와 백성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왕이었다. 조선사회가 신분등급의 한계는 있을지라도 그 사회의 질서가 평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한다. 준엄한 유교 국가적 이념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으며 왕실의 법도는 더욱 엄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폐비 윤씨나 연산군이 자행한, 정명의 책임과 강상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었다. 폐비의 비밀이 언젠가는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원자가 보위에 올라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피바람이 불 것을 종명한 인수대비가 모를 리 없다. 오히려 인수대비가 자신에게 미칠 부정적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왕비 윤씨나 연산군이 보인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요소를 칙결하려 했다는 데 그녀의 원칙과 소신이 빛이 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수대비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세자빈으로서 대비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던 여성이다. 무엇보다 그녀는 여성으로서 유교사회 질서를 숭상하고 예법을 실천하고자 했던 왕실의 어른이요 정치와 교육의 공공적 업적을 남긴 조선의 지식인이었다.

조선의 법은 관료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내기 위해 친족 간에는 같은 관청 심지어 상하관계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했다.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법과 제도의 뿌리인 양심의 회복을 바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참여마당

김종희 (국어국문학 2014)
캡스톤디자인 ‘스라밸’ 팀



“대학생의 스터디 라이프 밸런스를 위하여”

요즈음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워라밸이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으로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로, 힘든 직장인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복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온 말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공부와 취업,アルバ 등에 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대학생의 복지에 대한 인식은 사회구성원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차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캡스톤 디자인 강의에서 대학생들의 삶다운 삶, ‘Study-Life Balance’를 위해서 우리학교의 복지 현실, 특히 체육복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우리는 교내 체육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보기 위해 우리학교 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내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이 많았고, 알고 있더라도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체육시설 및 체육프로그램 둘 다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의 비율이 1/3 이상 차지했다. 특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의 비율이 50.1%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체육시설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이 불과 9.5%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 70% 이상의 학생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즉, 응답자 대다수가 우리학교의 체육시설 및 체육프로그램에 불만족하며, 새로운 체육시설과 체육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스페이스21 건설사업단’의 의견은 어떨까. 건설사업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체육복지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었는지, 앞으로 체육시설 건설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스페이스 21 사업 초기 단계에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현재의 체육시설인 운동장의 크기, 펜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운동 동아리,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됐다고 한다. 우리는 학생들의 체육 복지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건설사업단에 전달했다. 건설사업단은 그 수요를 알고는 있으나 먼저 나서서 수요조사를 하진 않으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리 위에 잡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를 위한 환경을 요구해야 한다. ‘운동은 무슨, 취직준비나 해야지’ 라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무시하기보다는 말이다. 물론 학생들의 요구를 총학생회가 제대로 반영하고 규합하여 학교에 잘 전달하여야 하며, 학교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권리의 주체인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더 나은 삶,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자연스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포기한 것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 습득의 비밀 - ⑥

언어 두 개 기쁨 두 배



외국어대학
김영주(한국어학) 학장

아동 구호 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몇 년 전 ‘언어 두 개 기쁨 두 배’ 사업을 펼쳤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에서 본인들의 모어를 사용하여 자녀를 양육하도록 돋는 사업으로, 가정에서 한국어와 출신국 모어를 사용해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이중언어 화자로 성장하도록 돋는 것이다. 필자는 이 사업에 참여해 교재 개발을 담당했다.

이중언어 경험 아동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

이중언어 아동을 다루는 연구들은 아동들이 이중언어로 혜택을 누린다고 한다. 이중언어 경험은 언어 발달뿐 아니라 아동의 학습, 인지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지 처리의 주요 기능인 선택적 주의집중 능력을 더 빨리 발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중언어 화자가 언어를 사용할 때면 두 언어가 활성화하나 이 중 한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

한 선택적 언어 사용이 선택적 주의집중 능력을 강화한다.

분석과 억제로 알려지는 인지 과정의 주요 기제가 선택적 주의집중임을 생각하면 이중언어 아동이 똑똑하다는 통설이 낭설만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단체의 사업명대로 이중언어를 도입한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기쁨도 두 배가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모어를 사용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열세한 국가에서 온다. 그들의 모어는 국내에서 선호하는 외국어가 아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우세언어와는 사정이 다르다.

사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가 있다.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일상 언어생활에는 문제가 없으나 학업을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는 것이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어머니의 언어 자극이 자녀의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을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은 데 그 이유가 있다.

이중언어 환경과 낮은 사회적 지위의 결합은 언어 습득 부진을 가중한다. Grosjean(1982)은 미국의 같은 도시에 사는 8세의 이중언어 아동 두 명을 조사하였다. 한 쪽은 학구적인 스웨덴 출신의 부모에 의해 미국에서 태어난 여아였다. 나면서부터 가정에서 스웨덴어와 영어를 사용했고 대화, 책, 여행을 통해서 계속 스웨덴어를 접했다. 다른 아동은 아이티에서 태어나 5세 때 미국에 이민 온 남아로,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두 아동은 같은 해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여아는 학업에 성공했고 남아는 실패했다.

열세국가 언어 사용 꺼리는 국내 다문화 가정

엄마가 자신의 모어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엄마의 권리이자

아동에게는 혜택이다. 국내 다문화 가정처럼 엄마 모어가 가정언어, 혹은 공동체 언어와 다른 경우

어쩔 수 없는 이중언어 환경이 된다. 여러 사례에서 처음 몇 년은 단일언어 아동보다 적은 수의 어휘를 가지고 생활하기에 어휘의 양에서 발달상의 지연이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아동이 이중언어 화자로서 이중언어 사용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이중언어 자극이 필요할 것이다.

한 언어는 숙달해야 이중 언어 혜택온다

이중언어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둘 중 한 언어에서의 충분한 숙달도가 중요하다. 언어 중 하나가 나이에 적절한 수준에 있어야 학업 성취에서 혜택을 본다.

Cummins(1979)은 연구에서는 두 언어 모두에서 숙달도가 낮을 때 학업 성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업 기능의 기반이 되는 인지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례보고는 자못 무겁다. 엄마가 모어를 사용하여 아동을 양육한다면 엄마의 능숙한 모어와 충분한 상호작용으로 아동은 엄마의 모어를 습득하고 인지를 발달할 것이다.

또한, 이중언어의 혜택을 누리려면 두 언어 중 하나는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또래 아동만큼 능숙하여야 한다. 한 언어에 능숙한 이중언어 화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식구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 습득은 유리한 환경에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 년에 두 차례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이중언어 아동의 언어 습득 특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 편이 무거운 건 그들의 환경이 그럴 만하지 않아 그 수고가 짐작되기 때문이다.